

성주사 창건과 철불 조성 연구

강건우(姜建佑)

I. 서론

II. 서해안 성주사의 이국 물품

III. 서해안의 거점사찰 성주사

IV. 성주사 철불의 조성과 의미

V. 결론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주요 논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6(2020); 「瑞山 普願寺 鐵造如來坐像 考察」, 『美術資料』 100(2021);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東亞研究』 41-2(2022)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聖住寺)는 낭혜화상(朗慧和尚) 무염(無染, 800~888)이 창건한 사찰이다. 무염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잠시 수도 경주에 머물다 김인문(金仁問, 629~694)의 후손들이 관리하던 사찰에 주석하였다. 이곳에서 무염은 불타고 남은 사찰을 중수하여, 847년에 선종사찰 성주사로 개창하였다. 이후 성주사는 사세가 번창하였고, 사역 내 여러 전각이 들어서며 대규모 가람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역 내 성주사의 영향력은 「송암산성주사사적(崇巖山聖住寺事蹟)」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송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성주사에 건립된 불전은 모두 73칸으로 전한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전단림구간(栴檀林九間)’이다. 전단림구간은 ‘전단으로 지어진 건물이 9칸’ 혹은 ‘전단을 보관한 곳이 9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성주사에 전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시아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장보고 사후, 서남해안 일대를 장악한 군소 해상세력이 동남아시아 전단을 대량으로 입수하여 성주사에 시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성왕대 김양(金陽, 808~857)은 무열왕계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명망이 높았던 무염의 성주사를 후원하여 왕실과 성주산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원성왕계 왕실에서는 성주사를 지방 거점사찰로 삼아 반왕실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무염은 사찰을 수호하고, 민심을 교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철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사 문도가 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사세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성주산문의 중심사찰인 성주사에 봉안된 철불은 지역의 민심을 결집하는 하나의 존상(尊像)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성주사 철불은 모두 2구로 확인되며, 현재 전하는 철불편과 대좌의 크기로 볼 때 각각 금당과 삼천불전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당에 봉안된 철불1은 2m가 넘는 대형 철불이고, 삼천불전에 봉안된 철불2는 1m가 넘는 중형 철불로 판단된다. 「송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개창선법당오층중각(改創選法堂五層重閣)’이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 성주사 개창시 철불1과 같은 대형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중층식 금당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불1은 「성주사비(聖住寺碑)」와 손가락편의 모양을 통해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결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성주산문은 동시기의 실상사(實相寺), 보림사(寶林寺), 삼화사(三和寺)와 같이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주존불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염이 초년에 화엄을 수학하였고 귀국 후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라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의 복고적인 경향이 선종사찰 성주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성주사, 전단, 무염, 철불, 시무외여원인

성주사 창건과 철불 조성 연구

강건우(姜建佑)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I. 서론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聖住寺)는 낭혜화상(朗慧和尚) 무염(無染, 800~888)이 창건한 사찰이다. 무염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잠시 수도 경주에 머물다 김인문(金仁問, 629~694)의 후손들이 관리하던 사찰에 주석하였다. 이곳에서 무염은 불타고 남은 사찰을 중수하여, 847년에 선종사찰 성주사로 개창하였다. 무염은 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857년에는 왕의 요청으로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산문의 개산 후 성주사의 사세는 날로 번창하였고, 사역 내 여러 전각이 들어서며 대규모 가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사세가 기울었다. 현재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노출된 유구와 석탑 3기, 석등 등을 통해 변창했던 성주사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선종사찰 성주사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연구와 조사가 병행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保寧聖住寺址大朗慧和尚塔碑, 이하 낭혜화상탑비)」를 비롯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백제 오합사(烏合寺)와 성주사와의 관계, 성주사의 창건과 배경, 무염의 행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¹ 고고학계에서는 성주사지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성주사 건물지의 조성시기와 조성기

1 權兌遠, 「聖住寺址의 史略에 關하여」, 『역사와 담론』 19·20(1992);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寺 創建」, 『한국고대사연구』 14(1998); 曹凡煥, 「新羅末 聖住山門과 新羅王室-朗慧無染과 新羅王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2(1998); 曹凡煥, 「新羅 下代 聖住寺와 地方勢力」, 『白山學報』 55(2000); 曹凡煥, 「新羅禪宗研究」(서울: 一潮閣, 2001); 김수태 외, 「성주와 낭혜」(서울: 서경문화사, 2001); 近藤浩一,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의 서해안 진출-張保臯 교역활동의 영향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8(2006); 신동하, 「百濟 聖住山 信仰과 聖住寺」, 『불교학연구』 22(2009); 강종원, 「백제 烏合寺의 창건과 정치적 성격」, 『白山學報』 94(2012); 김수태, 「성주사의 창건과 해상세력」, 『新羅史學報』 56(2022).

법 등을 검토한 연구가 발표되었다.² 미술사학계에서는 삼천불전지 소조상과 납입품, 성주사 인근에서 발견된 철불편(鐵佛片)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처럼 성주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무염의 활동과 사찰의 규모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 다만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 성과에 비해 무염이 조성한 성주사 주존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개창 당시 성주사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주사의 창건과 더불어 중심 불당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성주사에 주존불로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철불이다. 이 불상에 대한 단서는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철불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철불편의 경우 발견된 개체 수가 적고 파편임에도 불구하고, 신라하대 지방의 선종사찰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형 불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나말여초 철불 연구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9세기 남원 실상사(實相寺)를 시작으로 장흥 보림사(寶林寺), 문경 봉암사(鳳巖寺), 예천 한천사(寒天寺) 등의 사찰에서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대형 철불이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대형 철불의 제작 전통은 고려 개국 후에도 서산 보원사(普願寺)와 하남 하사창동(下司倉洞) 철불의 조성으로 이어진다. 성주사 철불은 실상사와 보림사 철불과 더불어 이른 시기에 선종사찰에서 제작된 사례이지만, 완형의 철불이 현존하지 않고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철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무염의 활동에 주목하여 성주사의 창건과 철불의 조성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라하대 선종사찰에서 대형 철불을 조성하려면 노동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의 사찰에서 불당을 건립하고 그 안에 숭배의 대상을 봉안하려면 많은 공력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사는 지역 내 사찰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신라하대 대표적인 선종사찰인 성주사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성주사의 영향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예로 전단(梅檀)이 주목된다. 「송암산성주사사적(崇巖山聖住寺事蹟)」에는 이국산(異國產) 물품인 전단의 사용이 확인된다. 흥덕왕대 사치재로 신분별 금지 물품이었던 전단이 성주사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신라하대 성주사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은 성주사의 창건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낭혜화상탑비」와 「성주사비(聖住寺碑)」에 등장하는 김흔(金昕, 803~849), 김양(金陽, 808~857), 무염 등을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하겠다. 성주사가 위치한 보령은 무열왕계 김헌창(金憲昌)의 난(亂)에 동조한 세력이 많았던 곳으로, 원성왕계 왕실은 지역의 민심을 각별히 경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왕실이 성주사의 무염을 후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성주사 철불의 조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전하는 철불편은

2 忠南大學校博物館 編, 「聖主寺」(대전: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임종태, 「聖住寺 創建 以前 先代伽藍에 대한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72(2013); 임종태, 「保寧 聖住寺址의 伽藍變遷 研究」, 『先史와 古代』 42(2014); 임종태,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려후기 성주사의 증건」,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015a); 임종태, 「신라하대 聖住寺 창건기 금당의 조성배경-고고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45(2015b).

3 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1999); 김순아, 「성주사 삼천불전지 출토 소조상과 납입품」, 『佛教美術』 27(2016).

모두 7점으로, 이 철불편은 1979년 백운사(白雲寺)에서 발견된 이후 1981년에 국립부여박물관으로 귀속되었다. 철불편 7점은 남아있는 편들의 길이로 볼 때, 크기가 다른 2구의 철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동시대 철불과의 비교를 통해 성주사 철불의 조성 당시 모습과 의미를 추정하겠다.

II. 서해안 성주사의 이국 물품

고대의 무역 및 조공은 육로(陸路)와 해로(海路)를 통해 사람들과 물품이 오가며 이루어졌다. 비단길로 대표되는 육로와 바닷길인 해로가 동서 간 물질문화 전래의 주요 루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육로는 대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고, 당(唐)나라 8세기에 일어난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는 토번(吐蕃)에 의해 육로가 통제되기도 하였다. 육로 운송의 불안정성은 바닷길인 남해로(南海路)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육로에 비해 대량의 물품을 한번에 운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였다.⁴

이 무렵 한반도도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신라의 해상교역은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는 752년 신라의 김태렴(金泰廉) 일행이 가지고 간 물품을 사기 위해 일본의 관료들이 작성한 일종의 구매 목록이다. 흥미롭게도 「매신라물해」에는 신라산 물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산 물품인 침향(枕香, 沈香), 정향(丁香), 훈육향(薰陸香, 乳香), 청목향(靑木香), 곽향(藿香), 용뇌향(龍腦香) 등의 향약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정향(10건), 훈육향(9건), 침향(8건), 청목향(6건) 등을 신청하였는데,⁵ 동남아시아산 향약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았다는 점은 이미 일본 내에서 향약의 효능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무역상들은 동남아시아산 향약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후, 이를 일본에 중계무역 형태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과의 교역은 834년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6)이 내린 교서와 887년에 건립된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A.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있고 관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서 명호가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르거늘,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사람마다 다투어 사치하고 호사하여 단지 외국의 진기한 물건만을 숭상하고 토산품의 세련되지 못함을 꺼리고 배격하며, 예법은 분수를 잃고 멋대로 참람되기에 이르고 풍속은 퇴락해만 가므로 이제 결연히 옛 규정에 따라 곡진하게 명령하노니, 만약 짐짓 법을 범한다면 진정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으리라.⁶

4 강희정,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 물질문화의 전래: 동남아와 동북아」,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pp. 86-87.

5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2009), pp. 359, 379-380.

6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

B. 혹시라도 호향을 가져다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질그릇에 잿불을 담아 환을 만들지 않고 태우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마음을 정성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명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솥에 섶으로 불을 지펴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겠다. 배를 적실 뿐이다”라고 하였다.⁷

먼저 A의 기록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외국의 진기한 물건만을 숭상하고 토산품은 꺼렸음을 알 수 있다. 흥덕왕대는 장보고 선단에 의해 수입된 외국산 물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던 시기다.⁸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흥덕왕은 사치풍조를 단속하고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들의 신분에 따라 외국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수레의 경우 침향과 자단과 대모(玳瑁) 등은 성골의 수레의 자재[車材]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진골 이하의 신분은 사용을 제한하였다.⁹ B의 비문에서는 호향(胡香)과 한명(韓茗)이 주목된다. 여기서 한명은 중국산 차를 지칭하고, 호향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침향이나 백단(白檀) 등으로 추정된다.¹⁰ 이처럼 사회 전반의 외국산 물품에 대한 선호는 해안가에 위치한 성주사에도 유효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승암산성주사사적」에는 다음의 흥미로운 내용이 전한다.¹¹

C. 改創選法堂五層重閣 三千佛殿九間 海莊殿九間 大雄寶殿五間 定光如來殿五間 內僧堂九間 極樂殿三間 文殊殿三間 觀音殿三間 寶賢殿五間 遮眼堂三間 十王殿七間 栴檀林九間 香積殿十間 住室七間 井閣三間 鐘閣東行廊十五間 西行廊十五間 東西南北間各三間 鐘閣二層 中行廊三百間破 外行廊五百間破 基階猶存 水閣七間破 庫舍五十間破矣¹²

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이강래 역, 『삼국사기』 II(서울: 한길사, 1998), p. 640.

7 “或有以胡香 爲贈者則 以瓦載糖灰 不爲丸而炳之曰 吾不識是何臭 虔心而已 復有以漢茗爲供者則 以薪爨石釜 不爲屑而煮之曰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河東 雙溪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서울: 伽山文庫, 1993), pp. 132, 147.

8 김수태·조범환, 『전라도 지역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서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pp. 187-188.

9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車騎, “眞骨 車材不用紫檀沉香 不得帖玳瑁 亦不敢飾以金銀玉.” 흥덕왕의 교서와 관련하여 外國 商人들이 唐에 반입한 南海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남해품 중 香藥으로 추정되는 물품은 沈香과 紫檀으로 보인다. 永正美嘉, 「新羅의 對日香藥貿易」, 『韓國史論』51(2005), p. 24.

10 永正美嘉, 앞의 논문(2005), pp. 22-23.

11 「승암산성주사사적」은 출전이나 편찬시기 등이 불분명하지만 최치원이 찬술한 「낭해화상탑비」와 그 위치를 기록한 점, 부서진 비 1기를 김립지 찬 「성주사비」라고 한 점, 각 전각의 명칭과 규모, 봉안한 불상과 현존 석탑 4기의 명칭을 밝힌 점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이다. 황수영, 「崇巖山聖住寺事蹟」, 『美術史學研究』98(1968), p. 450. 반면 「승암산성주사사적」의 비판적 검토는 梁承律, 「聖住山門 관련 史料의 검토」, 『古代研究』7(1999), pp. 40-54 참조.

12 황수영, 앞의 논문(1968), p. 450.

위의 사적기를 보면 성주사에 건립된 불전은 모두 73칸으로 내송당과 주실 16칸, 외행랑 830칸, 고사 50칸 등이 나온다.¹³ 이 중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전단림구간(梅檀林九間)’이다. 전단림구간은 전단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혹은 전단을 보관한 곳이 9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¹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성주사에 전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시아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후대의 기록이지만, 중국 송나라 조여팔(趙如适, 1170~1231)이 찬한 『제번지(諸蕃志)』에도 전단의 생산지가 나온다.

D. 단향(檀香)은 자바의 타강, 티모르 두 나라에서 나는데, 슈리비자야에도 있다. 이 나무는 중국의 여지(荔枝)와 같고 그 잎도 그러하다.¹⁶

D의 단향은 불교 경전에서 전단, 백단 등으로 나오며, 산스크리트어 찬다나(Chandana)의 음역이다. 『제번지』를 통해 전단은 자바나 슈리비자야(현재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됨을 알 수 있다.¹⁷ 슈리비자야 수도 팔렘방에서 9세기 중국 광둥(廣東) 도자기가 발굴되었고, 이 지역에서 자생한 전단 나무를 중국의 시박사(市舶司)에서 대량으로 매입하였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산 물품의 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전단이 성주사에 전래된 과정, 즉 동남아시아-중국-한반도 간의 중계 무역으로 유통되었는지 혹은 동남아시아-한반도 간의 직접 무역으로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도 1. 전단향, 7~8세기, 길이 66.4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호류지(法隆寺)에 전단향(法112)과 백단향(法113)이라 불리는 향목이 전해 참조가 된다(도 1). 이 향목들은 목서를 통해 761년과 9세기 전반 이전에 일

13 「송암산성주사사적」의 내용을 토대로 성주사의 규모를 정리한 논문은 韓基汶,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한국선학』 2(2001), pp. 283-284.

14 「송암산성주사사적」에서 전단을 가장 먼저 주목한 연구는 曹凡煥, 앞의 논문(2000), pp. 152-153 참조. 사적기에 전하는 전단림구간의 첫 자가 ‘木+冉’으로 나오는데, 이는 梅의 이체자로 보이며 문맥상 전단림구간으로 생각된다.

15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交易品」, 『韓國史學論叢』(서울: 新丘文化社, 1969), pp. 100-101.

16 조여팔, 박세욱 역, 『바다의 왕국들: 제번지 역주』(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 pp. 352-355.

17 신라시대 승려들이 梅檀香을 재배하였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박남수 앞의 논문(2009), p. 357. 여기에 대한 반론은 강건우,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동아연구』 41-2(2022), pp. 91-92 참조.

18 Geoff Wade, “An Early Age of Commerce in South Asia, 900-1300 C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0-2 (2006), pp. 252-256.

본에 중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⁹ 전단향과 백단향의 표면에는 팔라비어와 소그드어가 보이는데, 이는 당시 중계무역을 통해 향목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²⁰ 또한 일본 오사카 만(大阪灣)의 고대 항구 도시 사카이(堺) 시에 동남아시아산 백단을 사용해 만든 관음보살입상이 남아있다(도 2). 이 불상의 이목구비 표현은 일본 고류지(廣隆寺) 목조반가사유상과 유사하며, 화불(化佛)이 있는 보관과 각종 장신구로 치장하였다. 불상의 제작연대가 7~8세기라는 점에서²¹ 이 시기 동남아시아산 '향목', 혹은 '향목으로 만든 불상'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쳐 원거리를 운행한 무역선이 존재했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²²



도 2. 관음보살입상, 7~8세기, 백단, 높이 74.0cm, 일본 사카이시박물관

일본의 유입 경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도 전단이 수입되었을 것이다. 외국산 물품인 전단을 대량으로 운반하기에는 해로가 효과적이다.²³ 성주사의 지정학적 위치상 바다와 가깝다는 점에서 서해안의 해상세력이 동남아시아산 전단을 일괄 수입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즉 841년 장보고 사후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형성한 군소 해상세력이 서해안의 중계무역을 장악하였고,²⁴ 바로 이들이 바닷길을 통해 수입한 대량의 전단을 성주사에 시주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⁵ 당시 귀중했던 전단이 성주사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주자인 군소 해상세력과 무역과의 밀접했던 관계를 시사한다.

신라하대 서해안 일대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해상세력으로 당에서 건너온 복학사(卜學士)가 주

19 永正美嘉, 앞의 논문(2005), pp. 35-36.

20 奈良國立博物館, 『法隆寺: 日本佛教美術の黎明』(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4), pp. 115, 177-178.

21 奈良國立博物館, 『白鳳: 花ひらく仏教美術』(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15), pp. 86, 242; 桃木至朗, 「물품에서 본 동남아시아-동아시아/동북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물품으로 읽는 동유라시아 세계의 역동성』(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p. 24.

22 동남아시아 각국별 주요 침몰선 발굴 사례와 현황에 대해서는 주정미, 「동남아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현황」, 『역사와 경계』 97(2015), pp. 400-416 참조.

23 당대 선박 한 척은 낙타 2,000마리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선박의 규모에 대한 비교자료가 더 필요하지만, 항해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바닷길로 더 많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 崔在洙, 「古代中國의 海上活動과 海上シルクロ드: 古代로부터 唐宋시대까지」, 『해운물류연구』 22(1996), pp. 290-291.

24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新羅社會史研究』(서울: 一潮閣, 1997), pp. 225-228.

25 曹凡煥, 앞의 논문(2000), pp. 152-153. 해상세력[해상호족]과 해적의 상관성은 權憲永,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한국고대사연구』 41(2006), pp. 22-31.

목된다.²⁶ 복학사가 거주하였던 먼천군(沔川郡, 현재 당진시)은 본래 백제의 해군(槥郡)이었는데, 신라와 조선대에 각각 해성군(槥城郡)과 먼천군으로 개칭되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찬한 『임하필기(林下筆記)』를 보면 이 지역이 서해안의 대당교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전한다.²⁷ 복학사를 비롯한 군소 해상세력은 해성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보호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²⁸ 또한 '841년 일길찬 홍필(弘弼)이 바다의 섬으로 도주했는데 붙잡지 못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왕권의 영향력이 서남해안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성군의 해상세력들은 남포(藍浦)까지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을 통해 확보한 대량의 외국산 전단을 성주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상세력은 신분별 사용이 제한된 물품인 전단을 왜 성주사에 대량으로 후원한 것일까?

III. 서해안의 거점사찰 성주사

신라시대 선종사찰 성주사는 승려 무염에 의해 개창된 사찰이다. 무염은 구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산하였고, 성주사에 터를 잡고 국사(國師)를 역임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³⁰ 무염은 중국 유학 후 성주산문을 이루었지만, 그가 활동했던 때는 연이은 반역과 토벌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무염은 중국에서 유학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는 정국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행적이 기록된 「낭혜화상탑비」에서 이러한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도 3).

무열왕계 집안에서 태어난 무염은 출가 후 부석사에서 화엄종을 수학하였고, 817년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만나 실패하였다. 이후 822년에 이르러서야 당은포(唐恩浦)에서 김흔의 도움으로 중국에 가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822년 3월에는 웅천주를 중심으로 김현창이 난을 일으켜

26 신라 말엽에 복학사라 일컫는 자가 당나라로부터 본국으로 와서 살면서 바다 도적을 물리쳐 죽이고, 머물러 남은 백성들을 모아 보호한 적이 있었는데, 지점은 그의 후손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忠清道 沔川郡.

27 백제가 槥郡 加里渚의 동쪽에 水軍倉을 두었는데 해군은 지금의 沔川이다. 그 뒤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뒤에 다시 槥山の 동쪽에 창고를 두고 그 이름을 稂館이라 하였는데 唐나라의 使价와 商賈들이 모두 이 館에 들었으며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조공할 때도 이곳을 통해서 하였다. 豐川 椒島의 廣石山 밑에 唐館의 옛터가 남아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중국의 사신들이 바다를 건너서 왕래하던 곳이라고 한다.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 沿海亭館.

28 曹凡煥, 앞의 논문(2000), pp. 150-151; 權惠永, 앞의 논문(2006), pp. 15-16.

2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一古浪弘弼謀叛 事發逃入海嶼 捕之不獲.” 이에 대해서는 徐榮教, 「9世紀 中반 新羅朝廷의 海上勢力 統制」, 『경주사학』 13(1994), pp. 17-18 참조.

30 신라시대 국사는 홍척-현옥-무염-수철-행적-심희-개칭으로 이어진다. 신라하대에 뿌리내린 국사제도는 중국불교사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나말여초 불교사의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남동신, 「나말여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2005), p. 96.



도 3. 대남혜화상탑비, 891년, 성주사지

무진주(武珍州) · 완산주(完山州) · 청주(靑州) · 사벌주(沙伐州)와 국원경(國原京) · 서원경(西原州) · 금관경(金官州) 및 여러 군현(郡縣)을 복속시켰다. 반란은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동조한 종족(宗族)과 도당 239명이 숙청되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도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무염은 행동에 제약을 느껴 중국행을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된다.³¹ 중국으로 간 무염은 대흥성 남산의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종을 수학하였고, 이후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문하인 마곡보철(麻谷寶澈, ?~?)에게 심인을 받았다. 845년 당 무종(武宗, 재위 840~846)의 폐불정책(廢佛政策)으로 인해 귀국하게 되었고, 수도 경주에 머물다 북쪽으로 가서 거처할 곳을 물색하였다. 847년 정쟁(政爭)에서 밀려나 산중재상(山中宰相) 김흔을 다시 만났고 그의 청으로 웅천주 서남쪽에 위치한 사찰에 주석하였다. 이 사찰은 김흔의 조상인 임해공(臨海公) 김인문이 봉토로 받은 곳으로 수년 전 화재로 반쯤 소실되었는데, 김인문계 김현창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³² 그해 문성왕은 무염이 산중재상에게 답한 네 마디, 유연즉주(有緣則住)를 아름답게 여겨 사찰의 이름을 바꿔 성주(聖住)라 하였다.

무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승려가 직접 절터를 물색하여 사찰을 창건한 경우는 드물다. 쌍계사와 법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존의 사찰을 선종사찰로 창건하거나, 왕족이나 지방세력의

31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 『역사학보』 57(1973), pp. 26-27; 曹凡煥, 앞의 논문(1998), p. 436.

32 김수태, 앞의 책(2001), p. 37.

원찰을 희사받아 선종사찰로 창건하였다. 직접 절터를 물색한 경우 승려들은 토막이나 초막에서 수행하면서 법을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³³ 그만큼 사찰의 창건에는 후원자들의 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806년에 반포된 애장왕(哀莊王, 재위 800~809)의 교서(敎書)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㒺. 왕이 교서를 내려 새롭게 절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수리 보수하는 것만을 허락하였다. 또 수놓은 비단을 불교 행사에 쓰는 것과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들어 쓰는 것을 금하고, 마땅히 관련 부서에서 널리 알려 시행하라 하였다.³⁴

애장왕은 당시 귀족들의 사치생활과 사찰로의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불사신창(佛寺新創)을 금하였다.³⁵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애장왕의 교서는 무염의 성주사 창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염이 귀국한 845년부터 성주사를 개창한 847년까지 약 2년간 ‘(경주를 떠나) 북쪽으로 가서 몸을 마치도록 있을 곳을 눈여겨 골랐다’는 구절은 그만큼 초창의 어려움을 말해준다.³⁶ 또한 사치 풍조를 배격하고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자 834년에 반포된 흥덕왕의 교서도 선종 승려들이 수도 경주를 떠나 지방으로 가서 사찰을 물색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낭해화상탑비』에는 무염이 성주사를 창건하기까지 김흔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무열왕계 김흔과 원성왕계 문성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김흔은 839년 달벌(達伐, 현재 대구) 전투에서 패하여 소백산에 은거한 인물이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김흔은 정적이고,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성주사 일대는 반왕실적인 민심이 팽배하였을 것이다. 이 지역은 김인문의 봉지가 있던 곳인 만큼 김흔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이 지역을 다스릴 정치적인 방도로 또 다른 무열왕계 김양을 주목하였다.

33 韓基汶, 앞의 논문(2001), pp. 259-271, 304-305;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2013), p. 73.

34 『三國史記』卷10, 哀莊王 7年, “下敎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원문의 한글 해석은 이강래 역, 『삼국사기』 I(서울: 한길사, 1998), p. 255 참조.

35 李基東, 『新羅 骨品制 社會와 花郎徒』(서울: 一潮閣, 1984), pp. 207-208;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2003), p. 18; 曹凡煥,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昱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문화연구』 14(2008), p. 12. 한편 한기문은 9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교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졌고 사원경제의 비대화에 대한 조치로 승려들의 증가와 제한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韓基汶,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敎育論集』 12(1988), pp. 53-54.

36 “廼北行 擬目選終焉之所.”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李智冠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서울: 伽山文庫, 1994), pp. 159, 187.

F. 현안대왕이 단월이며 동생인 서발한 위흔과 더불어 남북상이 되었다.³⁷

G. 김양은 평동장군이라고하고 12월에 다시 출정했는데, 김양순이 무주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며, 우징 또한 용맹스러운 염장·장변·정년·낙금·장건영·이순행 등 여섯 장수에게 군사를 거느려 보내니 군사의 위풍이 매우 성대하였다.³⁸

H. (결락)……금전에 불상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재를 희사하여……(결락)……세금으로 걷은 쌀로 불상의 주조비용을 충당하고 위흔 이찬……(결락)³⁹

F에 등장하는 위흔은 김양의 자이다.⁴⁰ 김양은 김흔과 같이 김인문의 후손이며 둘은 종형제 사이이다. 김인문-김주원-김종기(金宗基)로 이어지는 가계의 구성원이며 김종기는 그들의 할아버지이다. 그런데 G에서 알 수 있듯이, 김양은 김우징의 편에 서서 839년 12월 민애왕의 군대에 맞서 싸웠다. 김양은 김흔이 패배한 그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842년에는 문성왕의 장인이 되었다. 그는 현안대왕과 함께 남북상(南北相)을 역임하며 권세를 이어나갔다.⁴¹ H는 김립지(金立之, ?~?)가 찬한 「성주 사비」로 현재 10여 편의 파비로 전하는데(도 4),⁴² 그 내용에 따르면 위흔 이찬 즉 김양이 세금으로 걷은 쌀을 성주



도 4. 성주사비편, 9세기, 충남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37 “時 憲安大王 與檀越季舒發韓魏所 爲南北相.”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李智冠 편, 앞의 책(1994), pp. 160, 189-190.

38 『三國史記』卷44, 列傳4 金陽, “三月 以勤卒五千人襲武州至城下 州人悉降 進次南原 迎新羅兵與戰克之祐徵以士卒久勞 且歸海鎮 養兵秣馬 (冬 彗孛見西方 芒角指東 衆賀曰 此除舊布新一報冤雪恥之祥也) 陽號爲平東將軍 十二月 再出金亮詢以鷁洲軍來 祐徵又遣驍勇閭長一張弁一鄭年一駱金一張建榮一李順行 六將統兵 軍容甚盛.” (괄호는 필자) 이강래 역, 앞의 책(1998), p. 794 참조.

39 “金殿歎無佛像頓捨家財……租稻充入鑄像工價魏欣伊浪.” 「聖住寺碑」.

40 『三國史記』卷44, 列傳4 金陽,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浪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浪 皆以世家爲將相.” 김양은 장보고와 함께 신무왕의 즉위를 도운 인물이다. 김양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윤병희, 「신라 하대 군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歷史學報』 96(1982), pp. 57-75; 孫興鎬, 「9世紀 前半 新羅의 政局變化와 金陽의 政治活動」, 『역사교육논집』 30(2003), pp. 29-100.

41 남북상이란 상대등과 시중을 가리키는 직위로 보인다. 李基東, 앞의 책(1984), pp. 170-171.

42 김립지는 825년 入唐使 김흔을 따라 당에 들어간 숙위학생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에 귀국 후 855년 翰林郎으로서 추성군 태수에 임명되었다. 9세기 「창림사무구정탑원기」 등을 제찬하였다. 李基東, 앞의 책(1984), p. 250.

사에 시납하였다. 이는 성주사의 운영에 후원자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납하는 쌀의 양이나 지속 여부가 시납자의 뜻에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⁴³

성주사가 개창된 847년은 김양이 김인문계 성주사를 후원한 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시중직에 오른 해이기도 하다. 849년에는 김흔이 사망하면서, 김인문계 내에서 김양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⁴⁴ 김양은 무염과 왕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김인문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 일대에 자신의 출신을 내세워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문성왕 역시 김양을 내세워 이 지역에서 김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성왕이 김양을 보내 무염이 사찰에 머물기를 청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김양의 역할과 왕실의 의중을 알 수 있다.⁴⁵ 왕실에서는 가지산문(迦智山門)의 보림사와 흥녕선원(興寧禪院)을 각각 선교성(宣敎省)과 중사성(中使省)에 예속한 것처럼, 성주사를 경주의 대흥륜사(大興輪寺) 아래에 두어 신라 왕실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⁴⁶ 이는 경제적 후원을 통해 지역 내 거점 사찰을 확보하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성주산문의 무염은 이러한 왕실의 정책에 잘 부응한 승려였다.

I. 대중년 초에 처음으로 나서 거처하면서 말끔히 정제하고 꾸미니, 얼마 안 되어 도가 널리 행해지고 절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진리를 묻는 사람들이 천 리를 반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오니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도들이 번성하였다. 대사는 종이 쳐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고, 거울이 고달픈 줄 모르는 것과 같이하여 찾아오는 자는 지혜로 그 눈을 뜨게 하고, 법열로 그 배를 채워주었으며, 뜻을 정하지 못한 무리를 깨우쳐 주고, 무지한 습속을 변화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문성대왕이 그 교화함을 듣고, 임금의 덕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매우 본받을 만하다고 편지를 보내 크게 위로하였다.⁴⁷

J. 문성대왕이 자주 신필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웅주는 바닷가에 접한 변방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43 曹凡煥, 앞의 논문(1998), p. 443.

44 김양은 848년 시중을 사임하였지만 병부령은 계속 역임하였을 것이다. 857년 현안대왕(상대등 김의정)이 김양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신하의 장례에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으로 볼 때, 시중을 사임한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입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권영오, 「신라하대 중기(839~888) 왕위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 24(2009), pp. 170~171; 姜在光, 「文聖王代の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造成的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2011), p. 113. 반면 김양의 정치적 몰락으로 추정할 견해는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의 成立」, 『역사학연구』 22(2004), pp. 136~145 참조.

45 황수영, 앞의 논문(1968), p. 450. 한편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등장하는 泰昕을 「三國史記」에 보이는 大昕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태흔과 대흔의 당시 관위가 이찬이고, 죽은 해와 달이 동일하고, 김흔의 字가 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聖住寺의 經濟的 基盤에 대한 一檢討—」, 앞의 책(2001), pp. 139~140 참조.

46 崔仁杓, 「新羅下代 禪宗教團의 動向과 王室의 對應」, 『新羅文化』 27(2006), pp. 96~108.

47 “大中初始就居 且口飭之 俄而道大行 寺大成 繇是四遠問津輩 視千里 猶跬步 其(麗+欠)不億 寔繁有徒 大師 猶鍾待扣而鏡忘罷 至者 靡不以慧炤 導其目 法喜娛其腹 誘憧憧之躅 變蚩蚩之俗 文聖大王 聆其運爲 莫非裨王化 甚怨之 飛手教優勞”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李智冠 편, 앞의 책(1994), p. 160, 188~189.

홍악하고 거만스럽다. 짐이 꾸짖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선사가 이미 불법이 뛰어나고 도덕이 감당할 만하여 사람들이 저절로 선을 행하였다. 짐이 매우 기뻐 선도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는 좌표로 삼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K. 남포의 도적떼들이 몰려와서 화상에게 나아가기를 청하니 (화상은) 묻는 질문에 따라 응답하고 대답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화상은) 지혜의 햇불로 그들의 눈을 이끌어주고 불법의 즐거움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다. 이로부터 도적떼들이 개과천선하였고, 출가하여 도를 깨친 자가 100여 명이었다.⁴⁸

I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염은 지역 내 영향력이 높았다. 그가 성주사에 주석한 후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자 문성왕이 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편지를 보내 위로하였다. 특히 “대사가 행하는 일(교화)이 왕도를 행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문성왕의 지방통치에 무염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무염의 활동은 J와 K에서 보다 자세하게 나온다. 사적기에 등장하는 ‘바닷가에 접한 사람과 남포의 도적들’은 앞서 살펴본 장보고 사후 해상무역을 장악한 군소 세력으로 추정된다.⁴⁹ 이를 통해 반왕실적인 경향의 이들을 교화하고 위무하는데, 무염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해안의 해상무역으로 수입한 외국산 물품인 전단이 성주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즉 해상세력은 왕실의 후원을 받는 성주사에 전단을 공급하여 장보고 사후 지역 내 자신들의 위치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왕실은 성주사에 방생장(放生場)의 경계를 표시하고, 무염을 국사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는데, 이 역시 무염이 지역만을 포섭하고 성주산문의 사세를 확장한 것과 관련한다. 즉 왕실에서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통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무염의 성주사를 후원하여 거점사찰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문성왕이 성주사에 무구정탑(無垢淨塔)을 건립한 점도 지역 내 왕권의 지위를 정당화하고자 한 방편이다.⁵⁰

48 황수영, 앞의 논문(1968), p. 450. 원문의 해석은 曹凡煥, 앞의 논문(2000), pp. 147-148.

49 이 세력을 해적으로 보고, 성주사를 중심으로 왕경인 휘하에 해적이 재편되었다는 견해는 近藤浩一, 앞의 논문(2006), pp. 141-147. 893년 병부시랑 金處誨의 익사 사건과 추성군 태수 金峻과 부성군 태수 崔致遠의 입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해적과 관련한다는 견해는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서울: 일조각, 2005), p. 293.

50 元善喜,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한국학논총』 30(2008), p. 141의 특히 주26. 중생의 윤회를 불쌍히 여긴 국왕의 특별한 배려로 탑이 세워지고 극락왕생이 기원되는 것도 군주의 우월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서울: 민족사, 1994), p. 177.

IV. 성주사 철불의 조성과 의미

보령 성주사는 백제 헌왕태자(憲王太子) 법왕(法王, 재위 599~600)에 의하여 오합사(烏合寺, 烏會寺)로 창건되었다가, 이후 847년에 선종사찰인 성주사로 개창되었다고 전한다.⁵¹ 성주사는 13세기 중후반 재지세력의 경제적 기반 아래 한차례 가람을 증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여 17세기 무렵에 완전히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⁵² 현재 성주사지에는 일군의 건물지 터와 「낭혜화상탑비」, 석탑과 석등, 석불입상, 당간지주, 석계 등이 남아있지만, 「송암산성주사사적」에는 성주사의 규모가 약 1,000여 칸에 이르는 대가람으로 기록되었다.⁵³ 이 사적기는 여러 전각들의 명칭과 칸수 외에도 터와 섬돌까지도 자세하게 전한다. 비록 사적기의 편찬 연대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1968년부터 실시된 성주사지 발굴조사 결과 성주사는 29,757㎡에 이르는 거대한 사역을 가진 사찰로 밝혀졌다.⁵⁴

이러한 규모는 창건과 증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조성 당시에도 김양의 후원을 받아 여러 채의 불전을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양은 불전 외 사찰의 중심인 금전(金殿)에 불상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불상의 조성도 후원하였다. 이전의 사찰이 소실되었을 때 불상도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주사를 개창하기 위해서 중심 불전과 주존불의 조성이 시급하였을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성주사비」에 그 내용이 전한다.⁵⁵ 다만 「성주사비」의 내용만으로는 조성한 불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성주사비」에 나오는 ‘금색임보좌이익광옥(金色臨寶座以益光玉)’을 근거로 금전에 금동불이 안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⁵⁶ 그러나 불상의 표면을 금박으로 도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금색이라고 다 금동불은 아니다. 철불 역시도 주조과정이 끝나면 상의 표면에 호분을 입히거나 개금(改金)을 해서 외관상으로 원재료를 파악하기 어렵다.⁵⁷ 대표적인 예로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에 나오는 삼존금상(金像之三尊)이

51 황수영, 「新羅 聖住寺의 沿革」, 『佛敎美術』 2(1974), pp. 1-2; 황수영,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54·155(1982), p. 22. 성주사의 전신을 오합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梁承律, 「金立之의 「聖住寺碑」」, 『古代研究』 6(1998), pp. 94-95 참조.

52 임종태, 앞의 논문(2014), pp. 125-126.

53 黃壽永, 앞의 논문(1968), pp. 450-451.

54 성주사지 발굴에 관해서는 忠南大學校博物館 編, 앞의 보고서(1998) 참조. 「崇巖山聖住寺事蹟」의 편찬 연대를 고려 중기 이후와 1518~1611년 사이로 본 각각의 견해는 南東信, 「聖住寺와 無染에 관한 자료 검토」, 앞의 책(1998), p. 625와 梁承律, 앞의 논문(1999), pp. 41-50 참조.

55 앞의 주39 참조.

56 남동신, 앞의 책(1998), p. 627.

57 최성은, 「나말려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 33(2006), p. 47.

있다.⁵⁸ 이 금상은 금박으로 도금한 철불이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도 5).⁵⁹ 비문의 기록 외에도 실증사례로 경기도 포천 흥룡사(興龍寺) 철불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상의 왼쪽 어깨, 오른팔, 법의 등에서 금박이 확인되는데, 나말여초 철불의 표면에 금박을 입힌 예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도 6).⁶⁰

9세기 지방의 선종사찰에서 조성된 불상을 유념한다면, 보령의 성주사에도 주존불로서 철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주사에 봉안된 불상을 철불로 보는 근거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도 5.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955년, 높이 259.0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5191)



도 6. 포천 철조여래좌상, 9~10세기, 높이 105.0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9976)

58 “대사께서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성군이 나를 스승이라 일컬으므로, 나는 부처님의 가호로 임금께 보답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존중한 공덕으로 옥황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삼존금불상을 조성하였다(大師告門人曰 聖君 致我稱師 報君以佛 奉爲祝玉皇之萬壽 鑄金像之三尊).” 『普願寺法印國師實乘塔碑』, 李智冠 撰,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서울: 伽山文庫, 1995), pp. 79, 99.

59 보원사 철불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금상으로 기록하였다.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美術資料』 41(1988), pp. 23-29. 보원사 철불에 대해서는 강건우, 「瑞山 普願寺 鐵造如來坐像 考察」, 『美術資料』 100(2021), pp. 22-49 참조.

60 강건우,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美術資料』 96(2019), p. 217; 강건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 -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6(2020), pp. 335-336. 포천 철불은 2구로 확인된다. 나머지 1구에 대해서는 崔聖銀, 「羅末麗初 抱川出土 鐵佛坐像 研究」, 『美術資料』 61(1998), pp. 1-20 참조.

가능하다. 우선 성주사지 인근에 살았던 마을 사람(이병호)의 전언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한일합방(韓日合邦) 무렵 일진회(一進會)에 관계하던 일본인이 와서 솔을 만들기 위하여 홍산(鴻山) 삼천리(三千里) 솔점으로 운반하여 갔는데, 그 철불은 대좌 위에 안치되었으며 어른이 철불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귀를 겨우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컸다”라고 한다.⁶¹ 즉 1910년 이전까지 성주사에 대형 철불이 대좌 위에 안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사 근처에 살았던 노인의 전언(傳言)만으로 철불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조선시대 임영(林泳, 1649~1696)의 시문집인 『창계집(滄溪集)』과 이복영(李復榮, 1870~?)의 『남유수록(南遊隨錄)』에 성주사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참조가 된다.⁶²

L. 어느 때 절이 기와와 돌만 뒹구는지 텅 빈 산에 철불만이 시름겨워라. 고운의 비문은 닳아 가고 있는데 백월의 탐비는 여전히 서 있구나. 계곡에서 근원 찾아 당도하여 산촌에서 집을 물어 머물러라. 앞 숲에 반짝이는 빛을 보고 옥 캐러 동쪽 언덕을 지나가네.⁶³

M. 성주동에 들러 최고운, 최치원의 비를 보았는데, 비석이 매우 컸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비석은 떠 있어서 비석의 귀부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니 귀부를 뚫지 않고 서 있었으나 머리카락이 들어갈 정도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말이 너무 황당하여 그대로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옆에 가부좌를 한 철불상이 있었는데, 반쪽이 부서져 있었으나 매우 장대하였다. 그리고 좌우에 크고 작은 4좌의 탑이 있었다. 보리밭 가운데에 무너진 초석과 황량한 담이 잡초에 파묻혀 있었다. 이것이 거대한 사찰의 옛터였다.⁶⁴

L을 통해 성주동에 고운(: 최치원의 字)의 비문은 마모되었지만, 여전히 백월의 탐비[낭혜화상탑비]가 서 있고, 노천에 철불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 성주산문의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17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M의 기록을 보면 성주동에는 대형의 철불좌상이 봉안되었고, 19세기에는 반파된 모습으로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M이 1894년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일기라는 점에서, 적어도 한일합방 이전인 1894년까지 대형 철불이 성주사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고종대(高宗代)에 작성된 <남포현지도(藍浦縣地圖)>에도 성주사 철

61 李殷昌, 「忠南 散逸文化財-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其他-」, 『美術史學研究』 91(1968), p.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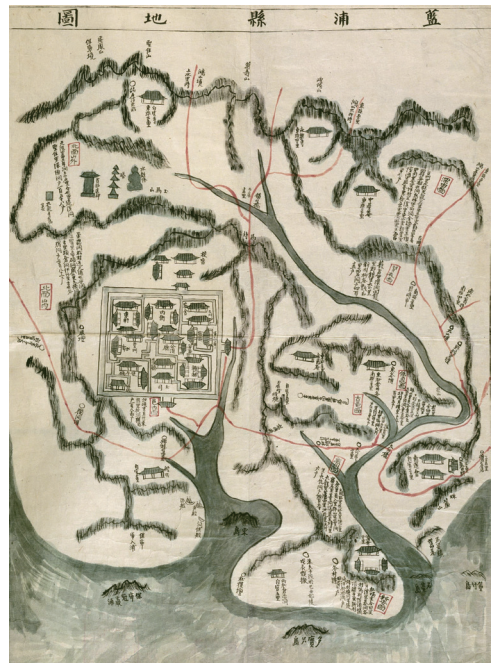
62 성주사 철불과 관련한 『滄溪集』과 『南遊隨錄』의 기록은 권보경, 「신라 하대·고려 철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22), pp. 120~121 참조.

63 『滄溪集』卷1, 詩 聖住洞, “瓦礫何年寺 空山鐵佛愁 孤雲碑欲缺 白月塔猶浮 峽水尋源到 庵村問舍留 前林見光氣 採玉過東丘.”

64 『南遊隨錄』, 甲午三月, “歷入聖住洞觀崔孤雲碑碑石絕大世傳云碑石浮而不著觀之果不鑑□而立之亦似有容髮之痕然語甚荒唐不欲準信也其傍有鐵佛跌坐像半邊破毀而甚長大左右有塔大小四座敗礎荒垣蕪沒於麥田中原是巨刹遺址也.”

불이 그려져 있다(도 7).⁶⁵ <남포현지도>의 북면 산외에는 수철불(水鐵佛), 최고운비, 탑이 묘사되었는데, 여기서 북면산외는 성주사가 있던 장소이며 최고운비는 「낭혜화상탑비」를 말한다.⁶⁶ 수철불의 ‘수철’은 무쇠의 이두식 표기이며,⁶⁷ 여기에 그려진 수철불이 바로 성주사의 금당에 안치되었던 철불로 보인다.

1979년에는 성주사지 부근 백운사 입구에서 철불편 7점이 발견되어 성주사 철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도 8). 철불편이 발견된 백운사는 <남포현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주사 위쪽에 위치한 사찰로 독자적으로 철불을 조성하고 봉안하기에는 사찰의 규모가 작다.⁶⁸ 따라서 철불을 목격했었던 마을 사람의 전언, 조선시대 문헌과 지도에서 보이는 수철불을 상기한다면, 이 7점의 철불편들은 일제시대에 파손된 성주사 철불의 일부이며, 그 크기로 볼 때 각각 2구의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7점의 철불편 중에서 특히 3점의 손가락편은 모두 원통형이며 이 중에서 가장 긴 손가락편은 길이가 19.7cm, 직경 3.5cm에 이른다. 1점의 손가락편은 수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며 손톱이 섬세하게 묘사되었고(도 9), 원형에서 2점으로 분리된 손가락편은 구부린 형



도 7. 남포현지도, 1872년, 73.0×50.0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8. 철불편 7점, 국립부여박물관(부2445)

65 梁承律, 앞의 논문(1998), p. 86.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朝鮮後期 地方地圖-忠淸道 편: 解説·索引-』(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p. 12.

67 水鐵에 대한 용례는 다음을 참조.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5月 10日, “命置貿易所於鏡城慶源 東北面都巡問使朴信上言 鏡城 慶源地面 不禁出入 則或有闖出之患 一於禁絕 則野人以不得鹽鐵 或生邊隙 乞於二郡置貿易所 令彼人得來互市從之 唯鐵則只通水鐵.” 한글 해석은 “무역소를 경성·경원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동북면 도순문사 박신이 상언하였다. 경성·경원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면 혹은 때 지어 물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야인이 소금과 쇠를 얻지 못하여서 혹은 변경에 혼란이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호시하게 하소서. 임금의 그대로 따르고, 다만 쇠는 수철만 오직 통상하게 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태종공정대왕실록』 2(1974), p. 290.

68 김춘실, 앞의 논문(1999), p. 93.



도 9. 철불1 손가락편, 국립부여박물관(부2445)



도 10. 삼화사 철조여래좌상, 9세기(복원 후 봉안 모습)

태이다. 3점의 형태를 고려할 때 긴 손가락편은 시무외인(施無畏印)으로 보이며, 구부린 손가락편은 여원인(與願印) 계통의 수인으로 생각된다. 「성주사비」에서 불상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N. (결락)……장육세존상을 모시었다.……
(결락)……단정 근엄한 모습이 빼어나고…
…(결락)……감색의 실과 같이 머리가
단정하고, 붉은 손바닥을 내밀어 상서로운
수인을 결한 손……아름다운 황금색으로
꾸미고 보좌에 계시니 더욱 빛나셨다.……
(결락)⁶⁹

비문의 ‘붉은 손바닥을 내밀어 상서로운 수인을 결한 손’은 시무외여원인 계통의 수인을 결한 철불이 성주사에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⁷⁰ 동시기 시무외·여원인 계통의 수인을 결한 불상으로는 8세기 중반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금동불, 9세기 중반의 실상사 철불, 9세기 후반 삼화사 철불이 대표적인 예이다(도 10).⁷¹ 여기에 동리산문(桐裏山門)의 태안사(泰安寺, 大安寺)에도 동일한 수인을 결한 철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인 철제 손의 팔목 각도와 손바닥의 위치로 볼 때, 오른손

69 “奉鐵丈六世尊像……端嚴眸容岐嶷……盤紺絲之髮……紅掌展瑞印之手……文紫磨金色臨寶座以益光玉。”『聖住寺碑』.

70 성주사 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이 시무외여원인 수인을 결한 철불이라는 견해는 김춘실, 앞의 논문(1999), pp. 96-97; 강건우, 앞의 논문(2013), p. 86 참조.

71 실상사 철불의 경우 1987년 불상의 해체·수리과정에서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한 철제 손이 발견되었다. 이 수인은 불상이 후보·개금되는 과정에서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강건우, 앞의 논문(2013), pp. 80-81; 崔聖銀, 「신라 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54(2014), p. 177.

을 앞으로 뺀 시무외인으로 생각된다.⁷² 또한 불상의 존명은 모두 노사나불(盧舍那佛)로 알려져 있다.⁷³ 이처럼 신라하대에는 화엄종뿐만 아니라 선종사찰에서 『60화엄경』의 주존 노사나불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무염이 초년에 화엄종을 수학하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왕실과 김양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라하대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의 복고적인 경향이 성주사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불의 존명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주산문에서도 동시기의 실상사, 보림사, 삼화사와 같이 노사나불을 주존으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⁷⁴

성주사에 주존으로서 봉안된 철불은 남아있는 편을 통해 그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철불의 신체 일부 중 손은 근래에 후보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아서 제외하고, 신체의 하부와 붙어서 묘사된 발가락의 길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실측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주요 철불의 발가락 길이

불상명		높이	발가락 최대 길이	비고
하사창동 철불		281.8cm	12.5cm	덕2748
보원사 철불		275.0cm	12.0cm	본5191
성주사	철불1		10.3cm	손가락편 길이 19.7cm, 직경 3.5cm 부2445
	철불2		4.5cm	부2445
포천 철불		132.0cm	7.0cm	본9975
철불		112.1cm	6.2cm	덕2653

(표 1)에서 성주사 철불편 중 철불1의 발가락 최대 길이는 하사창동 철불과 보원사 철불의 발가락 길이보다 작고, 포천 철불의 발가락 길이보다 크다(도 11). 성주사 철불1은 손가락편 길이가 19.7cm에 이르고, 하사창동 철불과 보원사 철불의 높이가 각각 281.8cm와 275.0cm라는 점에서 성주사 철불1도

72 崔聖銀, 앞의 논문(2014), p. 179; 강건우,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27(2017), p. 118. 이 철제 손이 850년대 桐裏山門이 개창될 당시에 조성된 불상의 說法印이라는 견해도 있다. 배재호, 「鐵製 佛手와 桐裏山門 大安寺: 谷城 泰安寺 출토 철제 불수와 관련하여」, 『美術資料』 89(2016), pp. 267-271. 이 철제 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 중이다.

73 각 불상의 존명과 관련해서는 『續日本記』 卷17, 12月 丁亥 條; 강건우, 앞의 논문(2013), pp. 80-82; 朴盛鍾, 「三和寺 鐵佛 銘文에 대하여」, 『文化史學』 8(1997), pp. 58-71. 한편 실상사 철불의 존명이 아미타불이라는 견해는 文明大,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研究」, 『佛敎學報』 37(2000), pp. 97-98; 진정환,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 53(2018), pp. 11-19 참조.

74 보림사 철불은 현재 지권인으로 인해 비로자나불로 명명되었으나 당대의 기록인 「장흥보림사보조선사탑비」에 노사나불로 지칭되어 있고, 9세기 ‘비로자나’ 용어 사용을 찾아보기 힘들며, 시대적으로도 9세기 중반에는 법신불 비로자나와 보신불 노사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는 ‘노사나’로 만들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주체와 배경」, 『美術史學』 40(2020), p. 22.



도 11. 철불1 발가락편, 국립부여박물관(부2445)



도 12. 철불2 발가락편, 국립부여박물관(부2445)

2m가 넘는 대형 불상으로 생각된다. 반면 성주사 철불2는 현재 전하는 발가락 길이로 볼 때 1m 남짓의 중형 철불로 추정된다(도 12). 두 철불은 크기가 다른 만큼 봉안처도 달랐을 것이다. 성주사 철불 1과 같이 대형 불상을 성주사 내 봉안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높은 금당이 필요하다.

성주사에 건립된 건물명이 나오는 「승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개창선법당오층중각(改創選法堂五層重閣)’이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 개창시 중층식 금당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주사 창건기 금당은 발굴조사 결과 초석 및 적심 등의 주열배치와 불대좌의 위치로 보아 연속구조 방식(連續構造方式)의 통층형(通層形) 중층건물(重層建物)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⁷⁵ 이는 「성주사비」에 기록된 김양의 후원으로 조성한 불상이 장육세존상(丈六世尊像)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 즉 중층불전의 건립은 불상의 대형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금당은 9세기 숭복사(崇福寺)와 10세기 보원사에서 확인된다. 숭복사의 경우 중층식 금당 안에 노사나불상을 봉안하였으며, 보원사에도 2층 높은 전각에 철불을 안치하였다.⁷⁶ 이러한 중층불전의 조영은 단층불전에 비해 고급 기술력과 막대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대부터 불전 장엄에서 최상의 단계로 인식되었다.⁷⁷

75 3차 금당의 기단도 및 내부 적심, 초석 등은 2차 금당의 것을 그대로 재사용하였을 것이다. 2차 금당도 3차 금당과 마찬가지로 五層重閣의 외형으로 추정된다. 임종태, 앞의 논문(2015b), pp. 287-292.

76 숭복사와 보원사의 기록은 다음을 참조. “겹으로 된 佛殿에는 용이 서린 듯한데 가운데에 盧舍那佛을 주인으로 모셨으며 층층 누각에는 봉황이 머문 듯한데 위에다 修多羅로 이름하였다.”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并序』, 崔致遠著, 崔英成譯, 『譯註 崔致遠全集I-四山碑銘』(서울: 亞細亞文化社, 1998), pp. 242-244; “법당은 2층 높은 전각으로 구름 위로 솟아있다.” 韓汝賢著, 李鍾醇譯, 『湖山錄』(서산: 서산문화원, 1992), pp. 48-49;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대형 불상이 봉안된 사찰의 중심 불전은 대체로 중층 구조이다.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研究」, 『미술사학연구』 234(2002), p. 96.

77 오세덕, 「조선후기 重層佛殿에 관한 연구」, 『石堂論叢』 56(2013), pp. 236-237.



도 13. 금당 대좌, 340.0×296.0cm, 성주사지



도 14. 삼천불전지 대좌, 178.0×162.0cm, 성주사지

한편 성주사 금당의 크기는 동서 1,980~2,000cm, 남북 1,440cm의 5×3칸 구조로 조사되었다.⁷⁸ 금당 내부에는 340×296cm의 대좌가 있고, 대좌 아래의 판축은 성주사 개창 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도 13).⁷⁹ 또한 금당 옆의 삼천불전(三千佛展)에도 대좌가 남아있다. 이 삼천불전은 발굴조사 때 발견된 청동광명대를 통해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청동광명대 부속에는 ‘대덕오년신축(大德五年辛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대덕오년신축인 1301년 이전에 삼천불전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⁰ 삼천불전 내부의 정방형 대좌는 화강암으로 치석되었고 그 규모는 금당 대좌의 절반 정도인 178×162cm이다(도 14). 크기가 서로 다른 2구의 성주사 철불편과 대좌의 크기를 상기한다면, 삼천불전에는 철불2(발가락 길이 4.5cm)가 봉안되었고, 개창 당시의 금당에는 철불1(발가락 길이 10.3cm)이 봉안되었을 것이다.⁸¹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주사비」에 안치된 불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성주사 철불1의 조성 시기는 무염이 성주사를 개창한 847년부터 「성주사비」 건립 하한인 853년 사이로 추정된다. 문성왕대 무염이 대형의 철불을 조성한 이유는 924년에 건립된 「문경 봉암사 지증 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의 기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78 忠南大學校博物館 編, 앞의 보고서(1998), p. 98. 한편 동국대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불상이 봉안된 금당의 크기는 정면 1,600cm, 측면 1,190cm이며 5×4칸 구조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東國大學校博物館, 「聖住寺址 實測調査-聖住寺址 第1次調査」, 『佛教美術』 2(1974), pp. 7-8.

79 김춘실, 앞의 논문(1999), p. 94.

80 임종태, 앞의 논문(2014), p. 123. 발굴조사 결과 삼천불전은 성주사 4차 강당이 조성되는 12세기 무렵에 건립된 건물로 편년되었다. 忠南大學校博物館 編, 앞의 보고서(1998), pp. 68-70, 75-76, 99-100.

8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두(신1692)가 충남 보령의 성주사지에서 반출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불두는 광복 직후까지 성주사에서 10리쯤 떨어진 암자에 있었는데 그 뒤 부여 홍산 방면으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전언(聖住寺址管理人 金觔煥氏 談)만 있을 뿐 문헌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東國大學校博物館, 앞의 논문(1974), p. 12; 최성은, 『철불』(서울: 대원사, 1996), p. 44 참조.

○. 곧 1장 6척되는 철불상을 주조하여 선(銑)을 발라, 이에 절을 수호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였다.……기와로 인 처마가 사방으로 이어지도록 일으켜 지세를 진압케 하고, 쇠로 만든 불상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하도록 하였다.⁸²

○를 통해 선종 승려들은 사찰을 수호하고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철불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같은 선종사찰인 성주사에서 철불이 조성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낭혜화상탑비」와 「송암산성주사사적」을 보면 ‘무염이 성주사에 머물자 사방에서 도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남포의 도적들이 출가하여 도를 깨친 자가 100여 명이었다’고 전하는데,⁸³ 그만큼 지역 내에서 무염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한다.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는 김현창의 난이 발생한 웅천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김현창의 난에 동조한 세력이 많은 반왕실적인 경향이 강한 지역이다. 855년(문성왕 17)에 ‘봄 정월에 사신을 보내 서남 지방의 백성들을 위문하고 보살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왕실은 서남 지역 민심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⁸⁴ 당시 무염은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성주산문을 개산하면서 잦은 전쟁으로 지친 지역의 민심을 위무하고, 반왕실적인 경향이 강한 지역에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무염은 사역 내 사악한 기운의 침입을 막고, 성주사를 수호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숭배의 대상으로서 대형 철불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주사 문도가 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사세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성주산문의 중심사찰인 성주사에 봉안된 철불은 지역의 민심을 결집하는 하나의 존상(尊像)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⁸⁵

V. 결론

이상에서 선종 승려의 비문과 문헌 기록, 발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성주사에 동남아시아산 외래품의 입수 경위와 사찰의 창건 배경, 주존으로 조성된 철불의 원형 및 봉안 장소를 추정해 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송암산성주사사적」에서 ‘전단림구간’이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여 장보고 사후

82 “乃鑄丈六金像傳之以銑爰用鎮仁宇導冥路……遂率先於衆防後爲基起瓦□四注以壓之鑄鐵像二軀以衛之至。”「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남동신,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 205-206.

83 주47, 48 참조.

84 「三國史記」卷11, 文聖王 17年, “春正月 發使 撫問西南百姓.”

85 “이름을 들 만한 문하 제자가 2천 명에 달하였고, 자리를 잡아 도량을 열었다고 일컬음을 받은 제자로는 僧亮, 普愼, 詢乂, 心光 등을 들 수 있다(門弟子名可名者 厯二千入索居而稱坐道場者 曰僧亮 曰普愼 曰詢乂 曰心光.)”「藍浦 聖住寺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李智冠 편, 앞의 책(1994), pp. 164, 203.

서남해안 일대를 장악한 군소 해상세력이 입수한 동남아시아산 전단을 성주사에 시주한 것으로 보았다. 752년 『매신라물해』, 9세기 흥덕왕의 교서와 선종 승려의 비문, 8~9세기 동남아시아산 전단향과 백단향 및 향목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일본에 전한다는 사실도 당시의 바닷길을 통한 중계무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9세기 신분별 금지 물품이었던 전단이 성주사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신라하대 성주사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준다. 이는 문성왕대 김양과 무염의 정치적 활동에 기반한 결과로 생각된다. 김양은 무열왕계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시 지역 내 영향력이 높았던 무염의 성주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성주산문과 왕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원성왕계 왕실에서는 편지를 보내 무염의 활동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사로 임명하는 등 성주사를 지방 거점사찰로 삼아 반왕실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단이 성주사에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무염은 지역의 민심을 결집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철불을 조성하였을 것이다. 성주사 철불은 모두 2구로 확인되며, 현재 전하는 철불편의 크기로 볼 때 각각 금당과 삼천불전의 주존불로서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당에 봉안된 철불1은 2m가 넘는 대형 철불이고, 삼천불전에 봉안된 철불2는 1m가 넘는 중형 철불로 판단되며, 이 중에서 철불1은 「성주사비」와 손가락편을 통해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노사나불로 추정된다. 무염이 초년에 화엄을 수학하였고 귀국 후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라하대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의 복고적인 경향이 선종사찰 성주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주사 철불 연구는 9세기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 일어난 대형 철불 조성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선종사찰에 두 구의 철불을 연이어 조성하게 된 배경과 철의 수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南遊隨錄』

『林下筆記』

『三國史記』

『續日本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滄溪集』

【도록 · 보고서 · 단행본】

강희정,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2005.

김수태 외, 『성주와 낭해』, 서울: 서경문화사, 2001.

김수태 · 조범환, 『전라도 지역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서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1994.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朝鮮後期 地方地圖-忠淸道 편: 解説 · 索引-』,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세종대왕기념사업회編, 『태종공정대왕실록』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이강래 역, 『삼국사기』 I · II, 서울: 한길사, 1998.

李基東, 『新羅 骨品制 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1984.

_____,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7.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서울: 伽山文庫, 1993.

李智冠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서울: 伽山文庫, 1994.

_____,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 서울: 伽山文庫, 1995.

李弘植博士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韓國史學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1969.

曹凡煥, 『新羅禪宗研究』, 서울: 一潮閣, 2001.

조여광, 박세욱 역, 『바다의 왕국들: 제번지 역주』,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

최성은, 『철불』, 서울: 대원사, 1996.

崔致遠 著, 崔英成 譯, 『譯註 崔致遠全集 I - 四山碑銘』,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8.

忠南大學校博物館 編, 『聖主寺』, 대전: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韓汝賢 著, 李鍾醇 譯, 『湖山錄』, 서산: 서산문화원, 1992.

【논문 · 연속간행물】

강진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 _____,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27, 2017.
- _____,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美術資料』 96, 2019.
- _____,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연구—입수 경위와 像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6, 2020.
- _____, 「瑞山 普願寺 鐵造如來坐像 考察」, 『美術資料』 100, 2021.
- _____,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東亞 研究』 41-2, 2022.
-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美術資料』 41, 1988.
- 姜在光,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造成的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 강종원, 「백제 烏舍寺의 창건과 정치적 성격」, 『白山學報』 94, 2012.
- 강희정, 「9세기 비로자나불 조성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3, 2013.
- _____,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물질문화의 교류」, 『東亞 研究』 37-1, 2018.
- 權惠永,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 권보경, 「신라 하대 · 고려 철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권영오, 「신라하대 중기(839~888) 왕위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 24, 2009.
- 權兌遠, 「聖住寺址의 史略에 관하여」, 『역사와 담론』 19 · 20, 1992.
-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 『역사학보』 57, 1973.
- 김수태, 「성주사의 창건과 해상세력」, 『新羅史學報』 56, 2022.
- 김순아, 「성주사 삼천불전지 출토 소조상과 납입품」, 『佛教美術』 27, 2016.
- 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 1999.
- 永正美嘉, 「新羅의 對日香藥貿易」, 『韓國史論』 51, 2005.
- 남동신, 「나말려조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 東國大學校博物館, 「聖住寺址 實測調査—聖住寺址 第1次調査」, 『佛教美術』 2, 1974.
- 文明大,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研究」, 『佛教學報』 37, 2000.
-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주체와 배경」, 『美術史學』 40, 2020.
- 朴盛鍾, 「三和寺 鐵佛 銘文에 대하여」, 『文化史學』 8, 1997.
- 배재호, 「鐵製 佛手와 桐裏山門 大安寺: 谷城 泰安寺 출토 철제 불수와 관련하여」, 『美術資料』 89, 2016.
- 徐榮教, 「9世紀 中반 新羅朝廷의 海上勢力 統制」, 『경주사학』 13, 1994.
- 徐志敏, 「三和寺 鐵造盧舍那佛像의 圖像의 意義와 造成背景에 관한 考察」, 『新羅文化』 49, 2017.
- 孫興鎬, 「9世紀 前半 新羅의 政局變化와 金陽의 政治活動」, 『역사교육논집』 30, 2003.
-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의 成立」, 『역사학연구』 22, 2004.
- 신동하, 「百濟 聖住山 信仰과 聖住寺」, 『불교학연구』 22, 2009.
- 심주안,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研究」, 『미술사학연구』 234, 2002.

- 梁承律, 「金立之의 『聖住寺碑』」, 『古代研究』 6, 1998.
- _____, 「聖住山門 관련 史料의 검토」, 『古代研究』 7, 1999.
- 오세덕, 「조선후기 중층불전(重層佛殿)에 관한 연구」, 『石堂論叢』 56, 2013.
- 元善喜,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한국학논총』 30, 2008.
- 윤병희, 「신라 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歷史學報』 96, 1982.
- 李殷昌, 「忠南 散逸文化財-聖住寺金屬佛·普願寺石塔金屬相輪·伽倻寺石塔 其他-」, 『美術史學研究』 91, 1968.
- 임중태, 「聖住寺 創建 以前 先代伽藍에 대한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72, 2013.
- _____, 「保寧 聖住寺址의 伽藍變遷 研究」, 『先史와 古代』 42, 2014.
- _____,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려 후기 성주사의 증건」,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 _____, 「신라하대 聖住寺창건기 금당의 구성과 배경-고고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45, 2015.
-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寺 創建」,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 _____, 「新羅末 聖住山門과 新羅王室-朗慧無染과 新羅王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2, 1998.
- _____, 「新羅 下代 聖住寺와 地方勢力」, 『白山學報』 55, 2000.
- _____,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昱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문화연구』 14, 2008.
- 주경미, 「동남아 수증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현황」, 『역사와 경계』 97, 2015.
- 진정환,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 53, 2018.
- 최성은, 「羅末麗初 抱川出土 鐵佛坐像 研究」, 『美術資料』 61, 1998.
- _____, 「나말려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 33, 2006.
- _____,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54, 2014.
- _____,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신라하대 서남해안 지역의 철불 조성과 관련하여-」, 『南道文化研究』 42, 2021.
- 崔仁杓, 「新羅下代 禪宗教團의 動向과 王室의 對應」, 『新羅文化』 27, 2006.
- 崔在洙, 「古代中國의 海上活動과 海上실크로드: 古代로부터 唐宋시대까지」, 『해운물류연구』 22, 1996.
- 近藤浩一,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의 서해안 진출-張保臯 교역활동의 영향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8, 2006.
- 韓基汶,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2, 1988.
- _____,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한국선학』 2, 2001.
- 황수영, 「崇巖山聖住寺事蹟」, 『美術史學研究』 98, 1968.
- _____, 「新羅 聖住寺의 沿革」, 『佛教美術』 2, 1974.
- _____,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54 · 155, 1982.

[영문]

Wade, Geoff. "An Early Age of Commerce in South Asia, 900–1300 C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0–2, 2006.

[일문]

奈良國立博物館, 『法隆寺: 日本佛教美術の黎明』,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4.
_____, 『白鳳: 花ひらく仏教美術』,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15.

【주요 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The Establishment of Seongjusa Temple and the Production of Iron Buddhas

Kang Kunwoo*

Seongjusa Temple was founded in Boryeong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by Monk Muyeom (800–888), better known as Nanghye Hwasang. After returning from studying in China, Muyeom stayed in the Silla capital city of Gyeongju for a period. He later settled in a temple that was managed by the descendants of Kim In-mun (629–694). He then restored a burned-out temple and opened it in 847 as a Seon (Zen) temple named Seongjusa. It prospered and grew to become a large-scale temple with several halls within its domains.

The influence of Seongjusa in the region can be seen in the *Historical Record of Seongjusa Temple on Sungamsan Mountain*, which relates that there were seventy-three rooms within the domains of the temple. What is most notable in the record is that the temple is referred to as “梅林九間,” which means either “a structure with nine rooms built with Chinese juniper wood” or “a place that houses Chinese juniper wood and has nine rooms.” Regardless of the interpretation, Seongjusa Temple had a large amount of juniper wood. Around this time, the term “juniper” referred to the olibanum tree (*Boswellia sacra*) native to the islands of Java and Sumatra in Southeast Asia. It is presumed that at some point after the death of Jang Bogo, the maritime forces that controlled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may have acquired a large amount of Southeast Asian olibanum wood and offered it to Seongjusa Temple.

During the reign of King Munseong, Kim Yang (808–857) patronized Seongjusa Temple and its head monk Muyeom, who enjoyed a lofty reputation in the region. He sought to strengthen his own position as a member of the royal lineage of King Muyeol and create a bridge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Seongjusan Buddhist sect. The court of King Wonseong designated Seongjusa Temple as a regional base for the support of royal authority in an area where anti-royal sentiment remained strong. Monk Muyeom is believed to have created an iron Buddha to protect the temple, enlighten the people, and promote regional stability. Given that the Seongjusa community had expanded

* Curator at the Iksan National Museum

to include more than 2,000 followers, the iron Buddha at Seongjusa Temple would have been perceived as an image that rallied the local residents.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two iron Buddhas at Seongjusa Temple. The surviving parts of these Buddhas and the size of their pedestals suggest that they were respectively enshrined in the Geumdang Main Hall and the Samcheonbuljeon Hall of Three Thousand Buddhas. It is presumed that the first iron Buddha in Geumdang was a large statue over two meters in height and the second one was medium-sized with the height over one meter. The *Historical Record of Seongjusa Temple on Sungamsan Mountain* contains the phrase “改創選法堂五層重閣” which indicates that a multi-storied Geumdang was newly built to enshrine a large Buddha sculpture like the first iron Buddha when Seongjusa Temple was founded. Also, according to the Stele of Seongjusa Temple and the surviving finger fragments, the first Buddha was making the fear-not and wish-granting (abhaya-varada) mudras. The main Buddha of Seongjusa Temple is possibly Nosana Buddha, just like the main Buddhas at the contemporaneous temples Silsangsa, Borimsa, and Samhwasa. Given that Monk Muyeom studied Hwaeom teachings in his early years and received royal patronage upon his return, it is believed that the retro tendencies of the Hwaeom school, centered on the royal family of the Silla Dynasty, were reflected in Seongjusa temple.

Keywords: Seongjusa Temple, Chinese juniper, Monk Muyeom, iron Buddha, abhaya-varada mudra